



길 위에서 만나는 술

차백성(車白星)

자전거 여행가, 월간 《자전거 생활》 편집위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수명이라는 한계는 피할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은 대체로 공평하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의 의지 여하에 따라 변한다. 똑같이 여든 살을 산 사람이라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간적으로 넓은 삶을 살기 때문에 아흔 살, 백 살을 산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자전거만큼 원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도구는 없다. 이 도구는 자동차처럼 화석연료를 들이켜지 않으니 냄새 고약한 배설물도 없다. 또 접근성이 용이해 주차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 먹은 데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여행을 하는 동안 체력이 느니 정신까지 맑아진다. 무엇보다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는

재미있다. 내 다리의 연장선상에 있어 '한 몸' 이나 마찬가지로이면서 걷기보다는 스피디해 변하는 풍경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크다. 여행의 깊이는 속도와 반비례한다. 속도가 자동차의 5분의 1밖에 안 돼, 많은 것들이 눈으로 가슴으로 들어온다.

자전거 여행의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만남과 여유로움이다. 낯선 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자 새로운 만남을 뜻한다. 여행지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여행 온 다른 여행자를 만난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다. 그 만남 속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스의 문호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통해 "본능과 질서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했다.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잠든에게 해 크레타 섬을 자전거로 찾은 적이 있다. 묘비명 역시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 이므로."

자전거 여행은 바로 그런 자유를 향유하려는 몸짓이다. 자유에 지칠 때면 질서로 돌아온다. 질서는 내가 매여 있는 일상이다. 돌아올 홈페이지가 있는 여행은 방랑과 구별된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겪은 육친의 갑작스런 죽음은 나로 하여금 멋지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말하자면 웰빙(well being)과 웰다잉(well dying)의 의미를 일찍 접하게 된 셈이다. 때마침 손에 쥔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는 내 인생의 목표를 다잡게 만들었다. 당시 자전거가 한 대 생기는 행운이 찾아왔다. 김찬삼 선생이 두 발로 세계를 다녔으니 나는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 자전거를 생각했다. 실험 삼아 돈암동 집에서 인천까지 달려봤는데 제법 할 만했다. '간'이 더 커져 고등학교 여름 방학 때는 3박4일 동안 대구까지 가기도 했다. 그런 역마살 DNA가 30년 넘게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가 기지개를 켜다.

1996년 8월 중국 쪽 백두산 등정과 인도네시아 발리 섬 일주, 2000년 1월 태국 북부 여행, 2002년 7월 미국 서부 해안 종주, 2004년 2월 뉴질랜드 종주, 5월 하와이 제도, 9월 일본(혼슈, 홋카이도), 2005년 9월 미국 중서부 지역 및 캐나다 로키 산맥 종단, 2006년 4월 유럽 8개국, 2007년 6월 중국 산둥 반도, 2009년 5월 일본(시코쿠, 오키나와) 등을 자전거로 여행했다. 2008년 9월에는 미국 여행기 『아메리카 로드』를, 2010년 11월에는 일본 여행기 『재팬 로드』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

지금 내 자전거 타이어에는 팔도의 흙, 세

계 20여 개국의 분진이 다 묻어 있다. 나는 주당(酒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애주가라 자부한다. 여행지의 특산 음식이나 그 지역 유명 술을 조금씩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글에는 주인공이 어느 날 홍차에 곁들여 마들렌 과자를 먹다가 어린 시절을 보낸 ‘콩브레(Combray)’라는 곳의 기억을 흥수처럼 떠올리는 대목이 나온다. 그렇다. 맛이나 냄새에 대한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의 창고 속에 침잠하여 잘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하나, 와이너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와인의 향기

‘극기’라는 테마로 미국 시애틀에서 샌디에이고까지 3,000킬로미터 태평양 해안을 종주한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 산타로사를 지날 때 K-J(Kendal-Jackson) 와이너리에 들렀다. 그림 같은 클럽하우스에서 식사와 와인을 시음하고 생산과정도 견학했다. 병에 붙이는 라벨(1999 Vintner's Reserve)도 기념으로 받았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꼽히는 이곳 나파 밸리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절반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품질 또한 좋다. 연중 비오는 날이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일조량이 충분한 데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은 포도 재배

에 천혜의 환경이다. 지나는 길에 이런 곳을 만난 것은 행운의 파랑새가 날아든 것이다.

기억 둘, 비 오던 날 텐트 속에서 마시던 술

자전거 여행은 비, 바람, 눈 등 자연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바람은, 때론 순풍도 불어주니 그런대로 극복할 만하지만 비는 그야말로 천적이다. 달리는 도중에 비를 만나면 우장을 챙겨 입고 목적지까지 가지만,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 그날은 하늘이 주신 휴식일. 이때 즐겨 암송하는 옛 사람의 글이 있다. 가진 것은 넉넉지 못해도 음풍농월하는 선조들의 풍류가 부럽다.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이야 박주(薄酒)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객창 밖 처연한 빗소리와 키위 라거(kiwi lager)는 친구가 된다. 잔에 떨어지는 물은 빗물이나 눈물이나... 이때 떠오른 여수로 그동안 밀린 여행수첩의 빈 곳을 채운다.

기억 셋, 스파게티와 함께 먹던 와인, 끼안띠(Chianti)

자전거 여행은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커 소화력이 허락하는 한 잘(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은 언덕이 많아 힘깨나 들었다. 점심 식사는 시간에 쫓들려 행동식으로 해결할 때가 많고, 해는 지고 갈 길은 멀면 달리면서 먹을 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저녁 한 끼만은 제대로 만들어 느긋하게 성찬을 즐긴다. 땅저미가 질 무렵 캠핑장에 도착하면 서둘러 텐트를 친 다음 식사 준비부터 한다. 간편식 위주이기는 하나 스파게티같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주로 만들어 먹는다. 감자 한 개, 양파 두 개, 다진 고기 200그램을 익힌 다음, 병에 든 인스턴트 소스를 넣고 다시 끓인다. 이때 토마토 한두 개를 으개 넣는다. 면은 삶은 다음 찬물에 헹구 물기를 뺀 후, 올리브 오일에 1~2분 볶아야 제맛이 난다. 반찬은 치즈, 살라미(염장 소시지), 오이 피클. 이때 토스카나 특산 끼안띠 와인을 곁들이면 일류 레스토랑 식사 부럽지 않다. 좀 넉넉하게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해결한다. 보통 아침에는 입이 갈갈하기 때문에 리조토(가미 쌀밥)에 전날 남은 소스와 반찬을 함께 넣고 푹 끓여 먹기도 한다. 내가 붙인 이름은 '재고 정리 잡탕 개죽 - 온갖 맛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식이다. 여기에 전날 먹다 남은 와인까지 넣으면 그 맛은 가히 환상적이다.

기억 났, 라면을 안주 삼아 먹던 샷포로 비루 샷포로의 먹거리 중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이 셋 있다. 맥주와 라면, 유제품이 그것이다. 맥주는 북위 43도 선에 위치한 지역의 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맛있다는 설이 있는데, 다름 아닌 미국의 밀워키(밀러 맥주), 독일의 뮌헨(맥주 축제 옥도버 페스트가 열리는 곳), 샷포로가 같은 선상에 있어 이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곳에는 1876년에 세운 양조장이 아직도 가동하고 있고 그 옆에는 맥주 박물관이 있어 인기 관광코스 중의 하나다. 우유나 치즈 버터는 광활한 초지와 덜 오염된 땅에 방목한 소에서 나온 것으로 만들었다니 품질이 좋고 고기 또한 최상품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샷포로 맥주만 먹여 키운 고기의 육질은 가히 별미라지만 이런 호사스러운 한 끼 식사는 며칠 여행 경비와 맞먹으니 후일을 기약한다. 대신 라면과 치즈를 안주 삼아 샷포로 맥주로 멋진 한 끼를 해결하고 함포고복하면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다.

생활이 권태로워질 즈음, 다시 자전거에 여장을 꾸리라는 은은한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가슴이 뛰고 무병(巫病)을 앓는 사람처럼 시름시름 신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도를 구하고 카메라를 챙기고, 텐트와 비상식량, 그리고 힙 플라스크(hip flask, 휴대용 작은 술통)를 애마에 실으면 마음은 벌써 바다를 건너고 있다.